

해양문화연구 제3호 1998년 2월

국민 해양 의식 고취와 교육 문제 - 초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최 영 호*

< 目 次 >

- | | |
|--------------------|-------------------------------|
| 1. 문제제기 | 5. 초등학교 교과서의 해양 관련
내용과 문제점 |
| 2. 논의를 위한 전제 | 6. 결론에 대신하여 |
| 3. 해양과 해양 의식 고취 | |
| 4. 초등학교 교육의 교육적 특성 | |

관심과 인식의 잔잔한 물결에서부터 분노와 걱정의
사나운 파도에 이르기까지 바다는 인간의 심성을 비추
는 거울과도 같은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런 바다
의 심성 표현에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담겨 있어 자궁의
기억을 되살리게 한다.

- 라이얼 왓슨, 『물의 행성 Water Planet』중에서

1. 문제제기

예나 지금이나 바다는 탈색되지 않는 가치로 전해지고 있다. 질푸른
물이 한번 몸을 떨면, 우리는 기호 아닌 기호와 푸르게 만나고, 넓은 물
이 개방하는 물질적 상상의 문으로 입성하곤 한다. 창조와 파괴로 직조
된 바다는 대자연의 변화무쌍함과 세계의 드넓음을 다같이 보여주는,
하나의 살아있는 상징물로 자리하고 있다. 한번도 깨어진 적 없는 바다는
어쩌면 살아움직이는 거대한 우주의 거울인지 모른다. 그 결과, 바다

* 해군사관학교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는 오늘도 수많은 형태의 은유와 신성성으로 명명되곤 한다.

그러나 오늘의 바다는 그런 신비를 고스란히 재현하지 못한다.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닥칠 위기, 아니 그런 위기가 예견될 때부터, 바다는 전지구인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일찌감치 바다로 눈을 돌린 나라들은 그 신성함에 경배했지만, 이제 와서 바다가 전지구적 문제의 해결사로 떠오른 일은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신비로운 바다를 두고 서로가 앞다투어 경배한다는 것은 바다 자체를 넘어 대자연의 거대한 순리에 스스로 복종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늦게나마 여기에 동참한 자들은 바다가 지닌 재생의 힘을 어떻게든 구하려는 신념으로 가득하다. 이제, 우리에게 바다에 관한 정보를 얻고, 바다와 인간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지식을 쌓는 일이 우선적인 과제로 주어져 있는 것이다.

바다를 직접 보지 못했거나 보았어도 전체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다의 수많은 가치들을 제대로 알려줄 방법은 무엇인가? 저마다의 바다 사랑법을 뒷세대를 위해 마음껏 펼치게 하고, 그 열기가 일상생활로 돌아들어오게 할 방안은 없는가? 그리하여 드넓은 바다를 마음껏 사랑하는 그 사랑법으로 지금의 삶을 흠없이 사랑하고, 삶의 전체적인 문화의식을 높이는, 말하자면 바다를 바르게 앞으로써 삶의 실천적 의지를 더욱 굳게 할 수는 없는 것인가? 결국, 필자가 주문받은 과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다의 가치를 바로 찾고, 풍성히 가꾸어, 널리 확산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필자는 이런 중대한 대안을 말하기에 지식이 너무 얇다. 주최측은 필자 선정을 고려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구에 옹한 이상, 필자는 이 길을 단대로 돌리거나 엉뚱한 논리로 사대를 물고갈 생각은 없다. 다만, 한가지 바람은 주어진 과제의 범위만은 조금 좁혔으면 한다.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지금으로서는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작지만 빠뜨릴 수 없는 것들을 많이

생각할 기회가 더 좋을 듯해서다. 초등학교 교과서로 이번 논의를 한정할 때는 이런 이유가 없지 않다. 일반적인 교육 과정 중 초등학교의 경우는 학습자로 하여금 주어진 세상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는 점이 우선시 된다. 초등학교 교육 과정은 사물을 편견없이 배우는 학습장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 과정에서 배우는 해양 관련 내용들이 무엇인지 그 현실을 찾아보고, 문제와 대안을 함께 생각해 보는 것으로, 이번 논의를 대신할까 한다.

2. 논의를 위한 전제

그렇다 하더라도 논의의 폭을 대폭 줄인 때는 까닭이 없지 않다. 첫째는 대안을 좀더 가까운 곳에서부터 찾아보자는 것이다. 둘째는 필자의 능력으로 다룰 만한 것을 취사선택해 보겠다는 속셈이다. 셋째는 이번 주제 <국민 해양 의식 고취 방안>에 사용된 ‘국민’ 개념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기 위함이다. 만일, 이런 개념을 벗어난다면, 이번 논의는 다소 관념적인 형태로 번질 우려가 있다. 사전적 의미로 보면, 국민이란 한 나라의 통치권 아래 같은 국적을 가진 사람들을 총칭한다. 그러나 그 구성원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논의는 종잡을 수 없을지 모른다. 우리가 찾으려는 대안 역시 구체적이지 못할 수 있다. 결국, 이런 의도는 이번 논의에 포함될 대상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주지하다시피, 인간은 개인마다 서로 다른 기질과 감수성을 갖는데, 그 대부분은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 주최측이 내건 주제는 해양 체험의 많고 적음이나 해양 전문가들을 위주로 찾는 대안이 아니다. 오히려 일반인들의 통상적인 해양 인식의 차원에서 모색하는 대안을 찾자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한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은 해양 관련 내용을 살핀다고 하여 그 초점이 해양 하나에만 제한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문제는 해양의 있고 없음이 아니다. 그와는 달리, 초등학교

교 교육 과정에서부터 촉발되는 한 대상에 대한 무의식적 편견과 인간이 어떻게 바다와 첫 만남을 하는지를 주목함으로써, 해양 의식은 물론이고 인간이 하나의 사물을 최초로 만날 때의 실체를 밝혀보자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 가졌던 편견이 어떻게 하여 생겨나는지를 염두에 두면, 이는 매우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필자는 논의 범위는 줄였지만 다음 전제만은 잊지 않았다. 바다란 무엇이며, 그 정의는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가. 인간과 바다는 언제부터 만났고, 바다로 인해 생성되는 삶의 모습은 어떠하며, 그것을 담아내는 예술적 형식의 특성들은 무엇인가. 그럴 때, 바다에 접근하는 시각과 자세는 어떠해야 하며, 바다에 관한 인간의 형식적 실험의 한계는 무엇인가. 그로 인해 재구축되는 우리의 삶은 어떠하고, 그 새로운 형태의 삶을 가능짓는 잣대는 무엇인가. 이 모두를 교육을 통해 가르친다고 할 때, 교육과 학습시의 수용 자세는 어떠해야 하며, 거기서 이루어지는 바다의 실질적인 이해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그렇게 쌓인 해양에 관한 지식과 실체를 찾기 위해 행해지는 일반인들의 참여도는 어떤 때 가장 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물론 이 정도의 전제로 현안의 해결책이 찾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전제들이 알게 모르게 의식화된 지금의 바다를 우리 손으로 직접 끄집어내고, 그 실체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할 자극제는 되리라 본다. 특히나 해양이라는 대상 자체가 그러하듯, 해양에 대한 우리의 사유 과정은 매우 복잡하다. 그런데 이를 생각함에 있어 그런 사유 과정마다에는 주관적 시각과 종합적 이해가 달라붙고, 나아가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거기에 자기 나름의 판단이 종합적으로 투여된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해양에 관한 교육을 따로 학습받지 않는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 초점을 둔 가장 큰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균형잡힌 교육을 위해서는 사실 해양만 별나게 다룰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들에게 ‘살아있는’ 대상으로서의 해양을 제대로

학습하지 않아야 할 이유 또한 없는 것이다. 문제는 교육 과정에 원용되는 해양 관련 내용들이 제대로 소개되느냐 하는데 있다.

3. 해양과 해양 의식 고취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바다 관련 내용을 논거로, 그 교육 과정에서 소개되는 '자연스런' 해양 의식을 보기에 앞서, 이번 주제인 해양-의식-고취 간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복합적인 사고·종합적인 이해·총체적인 시각을 요하고 있는 해양은 우리와 별개로 존재하는 대상이 아니다. 해양은 우리 삶의 구체적인 현실이자 살아있는 삶의 경계인 것이다. 한편, 의식은 한 대상에 다가가는 인간의 내재적 삶의 자유로움으로서, 자기 자신·자기 사고·자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라 하겠다. 그것은 행위 주체자들과 그들 각각의 행위들에 대한 도덕적 판단력을 구성하는 능력이다. 해양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로 인해 자기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그리하여 도덕적인 의무까지를 내포한 개념이 바로 여기서의 의식인 것이다. 반면, 고취-합의하든 합의하지 않든-는 해양에 대한 의견과 사상을 열렬히 주장하고, 널리 선전하자는 말이다. 뒤집어 보면, 이 말은 기존의 해양관으로는 도저히 해양의 본래 가치를 알려줄 수 없다는 저의가 담겨있다.

해양과 의식이 바깥의 삶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자유로운 행위라면, 고취는 어떤 행사적인 성격을 갖는, 조금은 부자연스런 행위일 수 있다. 어떤 행사든, 행사란 자발적이고도 자유로운 표현을 요하는 문화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그러므로 고취라는 개념이 잘못 다루어지면, 그것은 행사가 보여주는 문화의 보수성에 함몰될 수 있다. 문화의 보수성이란 자연이 아닌 것을 자연인 것처럼 만드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좀더 생각하면, 문화라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이런 보수성과

불가불의 관계를 갖고 있다. 누가 뭐래도 사람은 평소 자신이 살던대로 살면 그만이란 인식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인간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 혹은 공동의 삶에 일정한 형식을 부여하여 문화라는 것을 만들어낸다. 혹자는 문화 창조를 인간 삶에 있어 그리 급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 모른다. 문화가 생겨나는 모습이 억지스러운 면이 없지 않은 탓에, 더러는 그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취급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할 일도 없고 시간만 허비하는 자들이 만든 것이라고 치부할지 모른다. 이 모두는 일정 정도의 형식적인 측면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문화적 특성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문화는 삶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자발적이고도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일상적인 삶을 뛰어넘는 형태라는 것이다.

4. 초등학교 교육의 교육적 특성

우선, 초등학생들의 교육적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들의 사고가 매우 종합적이라는 것이다. 하나의 대상을 다양하게 관찰한 후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데 그들은 익숙하다. 아이들은 세세한 분석이나 단편적인 시각의 해석보다 대상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총괄해서 말하곤 한다.

둘째, 교육 대상으로서의 해양 역시 종합적인 특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해양은 바다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다. 널리 알려졌듯이, 해양은 바다로 인해 생기는 정치·경제·사회·역사·과학·문화·예술 등의 문제와 서로 얽혀있다. 가령, 항만이 하나만 봐도 그렇다. 항만이 건설되면 곧장 그와 관련한 배후 도시가 생겨나고, 그 도시는 새로운 문화의 전초기지가 된다. 부산과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해, 세계 유명 해양 도시들이 거의 비슷하다. 그들 도시는 모두 바다에 의해 생긴 역사와 전통을 다채롭게 간직하고 있다.

셋째, 초등학생의 교육 과정에는 보다 총체적인 시각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사회적 경험을 동반하며 행해지는 중·고등학교 교육과는 달리, 초등학교 교육은 비록 수많은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각각의 단계가 종합적인 사고를 갖도록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하나의 대상을 다룰 경우, 교육자는 개인과 사회, 인간과 자연, 현실과 상상 등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말해주고, 보여주고, 들려주는 복합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해당 사항을 미리 괄호로 묶는, 제한된 의미만을 가르친다면, 이는 넓고 큰 교육을 해야 할 교육자 스스로가 미래 세대의 항해를 가로막는 것일 수도 있다.

이 세 가지 특성은 교육부가 목표로 하는 교육 방침과 그대로 부합한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교과서를 통해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을 기르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요컨대, 초등학생들의 총체적인 사고 교육을 강조하는 교육부의 이런 의지는 다음에서 잘 나타난다.

- 가. 도덕성과 공동체 의식이 투철한 민주 시민을 육성한다.
- 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능력을 개발한다.
- 다. 학생의 개성, 능력, 요구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한다.
- 라. 교육 과정 편성·운영 체제를 개선하여 교육의 질 관리를 강화한다.

— 교육부, 「교육 과정의 구성 방침」, 『국민학교 교육과정 지침서』중에서

이렇듯,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육 과정은 도덕성과 공동체 의식, 사회 변화에 적용할 수 있는 창의력, 개성과 능력 개발에 주력한다. 언어 교육을 통해, 교육부는 아이들에게 교양 정신의 바탕을 겸비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목표는 교양 교육과 직결된다.

헤겔(Hegel)의 논리를 근거로 자아 형성의 의미를 중시한 카알 로비트(Karl Lowith)는 다음과 같은 전제로 교양 정신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로비트가 보기에, 교육은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의 교체로서, 교육 과정 하나하나가 세대간의 치열한 투쟁이었다.

인간 스스로 자기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헤겔에 의하면, 인간은 단지 자기 자신의 것일 뿐 아니라 만인 공통의 것인데, 자기를 전래된 언어와 더불어 풍습과 관련하여 공동체에 참가하도록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의 전제였다. 자기 형성이란 개인을 정신의 일반적 존재로까지 밀어올리는 것이다.

- 카알 뢰비트, 『헤겔에서 니체로』 중에서

하나의 교육 대상이 달라진다고 우리는 그 목표까지 바꿀 수는 없다. 교양 정신을 주장하는 뢰비트의 본뜻은 여기에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부가 지향하는 초등학교 교육 목표와 그의 주장은 다르지 않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필자는 그들의 가슴 속에 깃들기를 바라는 해양 의식 역시 인간의 교양 정신과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는 차원에서 교육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바다를 직접 대하기전, 아니 교과서를 통해 바다를 처음 만났을 때, 바다의 실체를 제대로 배우고 학습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아이들이 바다를 생각할 것이며, 책에서나마 바다를 사랑하는 법을 올바르게 배우지 않는다면, 어디서 우리 인간의 바다 사랑법을 배울 수 있는가? 그들은 바다가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를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는가?

5. 초등학교 교과서의 해양 관련 내용과 문제점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해양 관련 내용이 얼마나 소개되고 있을까? 여기서 그 전체적인 분석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겠다. 대신, 일례로 별첨(초등학교 교과서 해양관련 분야 내용(예))으로 소개하고, 교과 내용의 전반적인 것만 개괄적으로 말하겠다.

우선 강조할 것은 현재 사용되는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이번 주제가 바라는 바다 관련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이다. 다만, 문제는 그것들이 체계적으로 소개되고 있지 않고, 너무 단순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데 있다. 눈맛으로 읽는 바다 그림들이 대체로 살아있지 못하고, 동일한 장

초등학교 교과서 해양 관련 내용 (예)

과목	해양관련내용	문제점	보완 방향
읽기 1/1	차례부분/바다풍경(어촌,어부,그물, 갈매기,등대, 바다)		· 장러부분
	29쪽/어촌풍경(바다,배)	· 그림의 색깔	· 다른 형태의 어촌으로 교체
	43쪽/파도		교체
	64-65쪽/바다풍경(여객선,등대,갈매기, 바다,요트,해변,하늘,사람,지문)	· 바다와 하늘 구분 문제 지문에 맞지 않는 그림	· 그림 색깔 교체 · 지문에 알맞는 그림 삽입
	67쪽/바다풍경(여객선,요트,갈매기,등대,해변)	· 생동감 결여	
	69쪽/항구그림(상선,바다)	· 지문 내용 부족	
국어 읽기 1/2	13쪽/해수욕 장면		· 장러부분
'국어 읽기 2/1	91-93쪽/바닷가에 세워진 장군 동상	· 동상 이름 부재	· 동상 이름 '이순신' 부가
	111-116쪽/어촌풍경(대화,그림,지문)		· 장러부분(바다에 관한 균형감 있는 소개 부분)
국어 읽기 2/2	11-12쪽/배, 그림		· 색깔 표현 적절
	44-45쪽/돛단배,바다,시 107쪽/바닷속 여행(지문)	· 질문 결여	· 해당 그림과 지문에 맞는 질문 보충(생명의식 삽입)
국어 읽기 3/1	48-52쪽/강남이 어머니의 용기 (해상상인을 지아비로 둔 아내 이야기)	· 남편 극복의 장소로 바다를 택한 점은 좋으나 이야기 속에 여성이 직접 바다를 극복하는 장면 결여, 소재로서의 바다만 강조	· 남성이든 여성이든, 바다는 삶의 구체적인 현장을 알리고, 이를 극복하며 사는 일이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질문 보충.(거친 바다와 인간의 의지가 균형감있게 소개할 내용 필요)
	96-102쪽/바위꽃을 사이에 두고 바다의 파도소리와 하늘의 별빛이 나누는 동화	· 바다는있되 파도소리를 들려줄 형체 없음	· 내용에 맞는 그림 삽입
	121-128쪽/ 바다 경험(환경오염줄이기 장면)	· '바다청결' 이란 그림은 있으나 구체적인 지문 부족	· 그림과 일치하는 내용 소개
국어 읽기 3/2	6-7쪽/바다생물(연어의 일생)		
	22-26쪽/환경오염(맑은 물 지키기, 바다그림)	· 물의 소중함을 알리는 차원에서 그치는 지문	· 바다는 미래자원이란 차원에서 지문 내용 보충
	27-34쪽/거북선 그림과 지문	· 내용 자체는 주로 외국의 경우만 언급하는데 반해 거북선만 제시	· 가장 민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란 차원에서 거북선의 과학성을 알리는 내용 삽입
	60쪽/바다와 만(灣) 사진		
	89-96쪽/바다동물(고래)	· 그림만 있고 내용 부재	· 그림에 맞는 내용 보충
	108쪽/바다동물(상어그림)	· 상어의 흥미로움에 반해 조잡한 형태의 그림	· 그림 교체
	110-111쪽/선장		· 선상 생활의 어려움과 고난 극복 이후에 얻는 꿈이 다같이 소개되어 있어, 장러부분

면이 너무 자주 반복되어, 바다에 대한 흥미를 반감하고 있다. 결국, 바다 관련 내용은 상당하지만, 실제 접하는 면면들은 매우 빈약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교과서로 해양 관련 내용을 바르고 다양하게 교육하기 어려운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 현실태를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바다에 관한 소개 내용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주로 어촌(바다) 풍경과 해수욕 장면 제시에 그친다. 해저생물과 각종 바다 특산물도 제시되지만 색깔이 불분명하고 생기가 없다. 고대의 바다 관련된 이야기와 시(詩)가 산발적으로 소개되고, 바닷속 여행을 다룬 그림이나 사진들도 너무 조잡하여 흥미롭지 못하다. 바다 관련된 위인들의 삶도 소개 내용이 빈약하고, 각기 제시되는 어로 장면과 수산업 현장도 다양성을 결여하고 있다. 각종 해상 사고와 해양 환경 오염의 실상이 좀더 실감있게 다루어지지 않았고, 세계 수준에 달하는 우리나라 조선·선박업들을 너무 단조롭게 소개하고 있다. 바다=배로 생각해 온 아이들의 눈에 이런 단조로움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바다에 관한 상상력을 궁핍하게 만든다. 아울러, 해안 구조와 해류의 특성을 말하는 대목이 없지 않지만, 그런 해류의 흐름도를 보여줄 해도와 기타 바다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 바다 관련 직종과 그 직종별 특성과 차이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상 교역과 해양 자원 개발은 말하지만, 앞으로의 무한 개발 가능성이 달랑 그림 한장으로 제시될 뿐이다. 한마디로 말해,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해양 관련 내용은 분량상 적지 않지만 대부분이 피상적 소개 수준에 머물어 단편적인 얘기로만 그치고 있다. 특히, 바다를 다룬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바다 자체가 아닌 다른 것을 보완하는 형태로 소개되는 실정이다.

주지하다시피, 초등학교 교과서는 자라나는 세대의 인식과 사고의 종합성에 기초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다 관련 내용은 피상적·단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인간의 삶과 생명 공간으로의 바다, 세계 문화의 통로이자 각종 상상과 모험으로서의 바다는 전

혀 말해지지 않는다. 바다가 등장하고 설명되는 부분도 비체계적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제시되는 바다라 하더라도 그것이 바다의 시각이 아닌, 육지의 시각으로 일관해 있다는 데 있다. 바다를 체험하는 장면이 드문 것은 물론이고 제시되는 장면들이 고작 해수욕 장면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시각의 결과라 하겠다. 이런 시각은 바다가 지닌 무한한 잠재력을 간과한다. 그 결과, 미래 자원으로서의 바다를 언급하더라도 바다의 가치 자체를 절실하게 주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것은 기존 교과서에 소개된 내용들이 많다고 하여 치유될 문제는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바다에 관한 열린 문화 의식과 바다를 책임있게 주목하는 시각이 요구된다.

기존 교과서의 문제점을 일일이 말할 형편은 아니지만, 이런 시각에서 현재 교육되는 해양 관련된 내용들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자원으로서의 바다가 다채롭게 소개되고 있지 않다. 둘째, 바다가 단지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말해진다. 셋째, 바다 관련 항목과 직결된 질문 내용이 부족하고, 그 내용을 알려줄 지문이 적다. 넷째, 우리의 선조들이 보여준 해양으로의 진출은 소개하지만 그 미래적 가능성과 해양에 대한 각종 상상력을 불러낼 만한 장치가 부족하다. 다섯째, 생활 공간으로서의 바다를 총체적으로 그려내지 못한다. 바다와 관련된 섬 문화 등의 소개가 전무하다. 여섯째, 과학 기술이 바다와 관련해서도 눈부시게 발달하는데, 그것에 대한 소개나 설명이 없다. 일곱째, 해양 스포츠와 관련하여 그림으로 해수욕 장면만 제시될 뿐 바다가 인간에게 주는 즐거움을 놀이를 통해 다양하게 보여주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바다와 관련된 직종의 종류를 골고루 보여주지 못해, ‘바다=선원’이란 도식만 환기시킨다.

이제, 이런 기존 내용을 보완 차원에서 간단히 대안을 말해보기로 하자. 첫째, 바다 관련 그림들이 보다 생동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그림들의 내용과 문장 표현들 역시 조화롭게 자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둘째, 바다에 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제거하고, 다른 것과 상대적 균형감을 가질 수 있도록, 기존의 교과 내용을 재구성해야 한다. 선상 생활의 어려움을 삶의 고달픔만으로 그리는 것을 지양하고 인간 삶의 다양함과 새로운 차원으로 소개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바다를 삶의 새로운 공간으로 인식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바다 관련 주요 문화재에 얽힌 사연들을 소개하고, 그것이 주는 시사점을 적절한 문장으로 표현함으로써, 바다 종사자들의 열등 의식을 불식시켜야 한다.

셋째, 육지 자원의 고갈로 바다 자원의 중요성을 새롭게 들려줘야 한다. 이로 인해 각국이 얼마나 치열한 해양 개발 경쟁을 하고 있는지 각종 자료를 통해 제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발달상도 흥미롭게 소개해야 한다.

넷째, 각종 해상 사고들이 바다 자체로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시시키고, 바다 오염과 환경 파괴가 바다는 물론 하천 오염과 산업 폐기물의 결과란 사실도 실감나게 제시해야 한다.

다섯째, 상투적인 바다 그림을 지양하고, 역사 의식이 결핍된 해양 활동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차원을 극복해야 한다. 보다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진취적이고도 생동감 있는 바다를 실제로 들려줘야 한다. 이때, 외국의 해양 자료와 같이 제시하여 해양에 대한 우리 나라의 인식을 균형감 있게 말해줘야 한다.

여섯째, 국토 방위의 역할 중 역사상 각종 항쟁에 기여한 수군의 역할은 물론이고 오늘의 해군과 해경의 위상과 임무의 중요성을 적확히 기술해야 한다.

일곱째, 선조들의 해상 교역, 해양 진출 의지, 해양 모험 등의 사례를 적극 소개하고, 해양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역사와 현실이 보존되고 있는 바다들을 각종 자료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자라나는 세대들이 많은 상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덟째, 이 모두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실제 실습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며, 각 학년에 맞는 현장 학습의 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래서 그 결과가 실제 교육 평가에 반영될 뿐 아니라 그들이 학습한 현장으로 다시 보내져 거기서 일하고 있는 바다 사람들의 이해와 관심을 불러내도록 해야 한다. 이런 상호교류 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기회를 제공하고, 교사들로 하여금 이런 차원의 이해를 도모하고, 보다 구체적인 학습 단원을 개발하도록 자극해야 한다.

끝으로, 실제 해양 관련 현장들을 재미있고 과학적으로 들려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현재의 구태의연한 수학여행 문화를 혁신시킨다. 이를 위해, 해양 관련 내용을 조직적이고도 과학적이며 합리적으로 학습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 실무자들과 함께 그 후속 조치도 지속적으로 생각해 본다. 가령,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에게 음악 박물관에서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자신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며, 박물관을 한번 다녀간 사람에게 반드시 자신이 작곡한 것을 다시 그 박물관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프랑스 음악박물관의 문화적 담론에 준하는 것을 개발해 본다.

6. 결론에 대신하여

- 바다보다 '바다에서' 배운다는 의미가 담긴
해양 문화 담론을 개발하자.

옛부터 우리는 나라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고 말해왔다. 이는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서슴없이 하는 말이다. 액면가 그대로 보면, 이 말은 우리 민족이 바다와는 뿔레야 뿔 수 없는 관계를 지녔고, 다른 민족보다 바다와 훨씬 가깝게 지냈으며, 바다의 중요성을 결코 잊지 않은 민족이란 말이 된다. 바다를 이런 정도로 가까이

했다는 것은 곧 바다를 매우 애지중지 했다는 말과 같다. 하지만 실제는 어떠한가? 불행히도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 우리의 바다를 대해왔다. 아니, 눈으로 목격한 바다는 가슴에 각인된 바다보다 훨씬 평가절하되어 있다. 이런 결과에는 바닷사람들 스스로가 행한 행태를 빼놓을 수 없다.

술취한 선원의 실수로 항로를 이탈한 배가 좌초되고, 좌초된 유조선에서 새어나온 기름이 연안의 양식장과 해안을 순식간에 파괴하게 한 것은 누구인가? 기름범벅이 된 바다엔 물개조차 살 수 없어 해안으로 올라오는 파괴된 바다를 만든 것은 어디에 사는 사람들인가? 자신의 운명을 보장하던 배가 낡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바다에 방치하고 달아나며, 양식장의 폐그물과 고기잡이를 즐기는 낚시꾼이 두고간 낚시줄이 바다밑에 층층이 쌓여 해가 갈수록 오염의 바다로 만드는 것은 누구의 실수인가? 수많은 바다 생물들이 자식을 낳고 그것들이 자라서 인간에게 신비로운 삶을 베풀고 사는 바다밑을 바닥까지 짹짹 훑어 우주적 비밀이 묻혀 있는 바다의 생태계를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든 자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그들이 도시 사람인가, 아니면 농촌 사람들인가? 공유수면의 보호는커녕 거기서 자라는 각종 치어까지 몽땅 잡는 바람에 연안에는 아예 고기의 씨가 마르고, 위험을 무릅쓰고 먼 바다로 나가 고기잡이를 하던 자들의 수고와 그들의 위험 부담은 누가져야 하는가? 바다와 더불어 사는 것이 왜 운명과 함께 산다는 말을 그들의 아내들로부터 내놓게 하는가? 이것은 모두 바다와 소원한 관계에 있는 자들의 행패가 아니다. 바로 바다와 함께 산다고 자부하는 바닷사람 자신들 스스로가 만든 오늘의 바다 현실이다. 사태가 이러한 데 어찌 바다와 더불어 살지 않는 사람들의 편견—바다는 두렵고 칙칙하고 위험한 곳—만 크게 나무랄 수 있겠는가!

땅이 죽으면 나라가 죽고, 바다가 죽으면 우주가 죽는다. 언제부턴가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도시가 사람살

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그렇다면, 어촌은 어떠한가? 아니, 바다는 어떠한가? 바다를 떠났던 사람들도 회유성 물고기가 돌아오듯 그렇게 돌아오고 있는가? 그 숫자는 정확히 모르지만, 바다의 중요성이 갈수록 심각한 차원에서 말해지는 지금의 바다로 바다를 떠난 바닷사람들이 다시금 돌아와야 할 명분만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 앞엔 전지구적으로 사고하고,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바다가 놓여있다. 정당하게 평가하고 대물림해서 살아야 할 바다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급선무는 기존의 해양관을 재정립하는 일이다.

바다는 인간 생활에 필수 요소인 의(공업자원)·식(식량자원)·주(생활공간) 차원에서만 가치를 갖지 않는다. 바다는 생명과 공생의 진실을 담지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앞의 바다를 보는 바다에서 알고, 찾고, 가꾸는 바다로 다시 이해하고, 교육의 현장에서는 이를 항구적으로 배우는 바다로 재교육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살아있는 바다를 담은 문화적 담론 개발이 시급하다. 필자가 보건대, 그것은 바다가 아닌 바다에서 배우는 논리를 한시바삐 구축하는 일이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 있을 수밖에 없다는 동양적 사고를 새삼 끄집어낼 필요도 없이, 이런 새로운 틀로 우리 인간과 바다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교육해야 한다. 그리하여 바다의 중요성을 육지와 상반된 입장에서만 강조하는 태도를 과감히 청산해야 한다. 분명히 말해, 바다는 육지와 상반된 것이 아니다. 바다는 육지든 그 자체가 곧 전체요 개체적 진실이 포함된 것이다. 이 둘을 한꺼번에 교육할, 우리 인간은 바다가 아닌 바다에서 배운다는 문화적 담론을 창조해야 한다.

이때, 철학자 정화열의 주장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그는 “세계나 지구를 모든 존재와 사물의 영구적인 거처가 되게 하자”는 입장에서 “생태공경(ecopiety)” 철학을 제시하고 있다. “인간이든 아니든 모든 것은

우주의 다른 모든 것들과 연결”된 고로, 그의 주장은 존재의 상호 연결된 연속성이 바르게 찾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오늘의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을 대신할 생태적 인간(homo ecologicus)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세계가 단지 지구촌일 뿐 아니라 “생명공동체”란 사실을 직시한 결과이다. 바다에 관한 새로운 문화적 담론을 개발함에 있어, 정화열의 주장과 더불어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의 심적 태세 또한 주목해 봐야 한다. 그는 죽어가는 나무 한 그루를 살리기 위해, 우리 자신의 ‘생명’ 까지도 투사할 수 있느냐고 정직하게 물었던 자다.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 바다는 한 그루 나무보다 훨씬 더 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오랜 역사적 시간을 함께 해 왔다.

98년부터 그간 대안 교육을 주장하던 학교들이 정식으로 인정된다고 한다. 그런 학교들 대부분은 도시가 아닌 시골에 있다. 도시 문화가 주는 폐해와 인성 교육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사람들에게겐 적지 않은 기쁨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학습 교재도 새로운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바다를 가르칠 때, 해수욕 장면 하나만으로 그 가치가 말해져서는 곤란하다. 그보다도 바닷사람들이 어떻게 일하고, 거대한 자연과 더불어 사는지, 바다로 인해 대륙과 대륙이 어이지고 그것이 나라 경제와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를, 과학적·생명적·합리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그런 점에서 현재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해양 관련 내용은 보다 총체적이면서도 생명의 관점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실제 현장 경험의 중요성이 요구되는 만큼, 현재의 항만이나 부두를 어디든 학습 현장으로 개방해야 한다. 거기서 바닷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고, 그런 일이 나라의 전체 경제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도 배우게 해야 한다. 결국, 아이들이 바다와 좀더 밀접해질 수 있는 친수 공간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구모룡 교수가 말한 바와 같이, 바다 백일장을 열어 그들이 글을 통해 바다를 즐겁게 사랑하고 다가가 수 있게 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 바다라는 자연을 종합적인 이해

할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야 한다. 그런 눈으로 인간과 자연의 미래까지 발견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걸려면, 바다와 인간이 좀더 공개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단지 중요하기 때문에 바다를 강조하는 교육으로는 그 보편적 가치를 얻기 힘들다. 필자는 바다가 지닌 보편적인 성격과 우리 삶의 어떤 것이 서로 결합하는 가운데서 새로운 형태의 해양의식이 싹틀 수 있다고 본다. 바다를 새삼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앞에 해양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 아니고, 해양을 바르게 앎으로써 인간과 인간의 조건들이 조화롭게 형성되는 지혜를 터득할 수 있어서다. 그것은 인간의 평상적 삶의 즐거움을 복원하는 것과 직결된다. 삶 바깥에 존재하는 바다가 삶을 돌아나가면서 삶의 실체를 새롭게 드러내 준다면, 이는 해양으로 인한 일상적인 삶의 경이로움이다. <국민 해양 의식 고취 방안>이란 거창한 주제하에 씌어진 본고는 소략하지만 바다와 인간이 새로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한 방편에 불과하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양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은 바다를 보는 근본적인 시각을 교정하는 일이라 하겠다. 단지 바다를 경제적·물질적 가치로만 주시하는 시각을 거두고 그것의 생태학적 가치와 역사·사회·문화적 가치를 조화시키는 일은 결국 교육을 통해 해양 관련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인간의 감정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따져보는 일과도 무관하지 않다.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결합하여 사회 체계를 조직하는지를 아는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찾아질 것이다. 사람이 살고 있고, 공생의 원리가 지배하는 바다는 우리의 실제적인 현실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지구는 우주 가운데 유일하게 물이 있는 행성이라고 한다. 물이 있다는 것은 곧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생명이 있다면 그것은 더불어 사는 삶이 있다는 증거이다. 거기엔 미래 또한 있지 않을 리 없다. 바다는 지구가 버릴 수 없는 미래의 꿈이다. 우리가

바다를 파괴하면 그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꿈과 미래를 파괴하는 행위일 것이다. 지금의 우리가 바다로부터 이자를 얻고 사는 것은 아이들의 미래를 빌려쓰며 얻는 수익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바다와 자원, 물질과 생명, 지구와 우주, 신화와 현실, 꿈과 미래의 관계들은 모두 바다와 인간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환기시킨다. 학교 교육은 이런 철학적 토대 위에서 해양을 가르쳐야 한다. 지금의 학습 교재는 이것을 너무 단순하게 다루고 있다. 그리고 바다에 종사하는 사람들 역시도 자신의 삶의 현장에 새로운 철학을 갖고 일해야 한다.

고향의 전통을 잃어버린 사람은 뿌리없는 나무와 같다. 이런 넓고 큰 바다를 하나로 담아내는 문화적 담론의 개발은 그래서 시급하다. 해양에 관한 일상적인 삶의 문화 의식을 높이는 것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그 가치는 그대로 버려진 바다. 이제,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우리 스스로 미래의 원시 사회로 전락하는 일만은 없어야 한다. 그럴려면 거창한 성명이나 연설보다 해양을 통해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이 보다 재미있고 풍부하고 기억할 만한 것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해양 없이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 역시 너무 답답하다는 것도 느끼게 하고, 해양도 인간의 일상적 삶에 의해서 의미가 새로워지고 일상적인 삶도 해양에 의해서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우리가 염원하는 해양 의식 고취의 목표는 여기서 달성될 것이다.